

## 구입한 기계를 자신의 기계로 만들자



**이근택**

(주)이·지엠 코리아 대표이사

1. 낙농의 생산성을 체계화 하자
2. 젖소의 느낌을 가지고 현실적인 관리를 하자
3. 주관성이 있는 목장사업을 하자.
4. 기계구입시 신중히 선택하자
5. 구입한 기계를 자신의 기계로 만들자
6. 항시 애프터 서비스의 중요성을 가지고 있자

**며** 칠전 낙농육우협회의 낙농일선 담당자가 필자에게 “현재 우리나라의 낙농 농가가 직면하고 있는 여러가지 문제점과 어떻게 하면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가에 대해 원고를 부탁했을 때 송구스러운 마음으로 승락을 했다.

그 이유는 나 말고도 우리나라의 낙농현장에 더욱더 많은 경험과 오랜 세월을 모진 연유와 어려운 풍파속에서도 지금까지 꿋꿋하게 견디어 온 산 경험자들도 많을텐데 나같은 사람이 감히 이러한 글을 많은 낙농가의 가슴에 닿을 수 있도록 쓸 수가 있을까 하는 의구심과 두려움이 들었기 때문이다.

그래도 흔쾌히 수락을 한 이유는 벌써 이 낙농계통의 자동화 시장에서 인정을 받기 시작한 세월이 10년이 넘고 있으며 또 내 자신이 전문적인 영업에 바탕을 둔 사업가이기 보다는 처음부터 전공이 전기, 전자의 계통이다 보니 누구보다도 더 빨리 자동화의 개념을 더 쉽게 파악할 수 있었으며 그러한 10년동안의 세월속에서도 우리 회사가 명실공이한 까닭도 주위의 많은 낙농가의 후원과 믿음 덕분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본고에서는 나름대로 오늘날 우리가 지니고 있는 낙농산업에 대해 정리된 입장을 표명해 읽으시는 낙농가중에 다소나마 입장을 같이 하는 분이 있으면 하는 바람이다.

그간 우리나라 각 농가에 송아지를 몇마리씩 분양해 낙농을 시작 한지가 몇 년이나 되었던가.

과거의 낙농현실을 되돌아보자면 참으로 우여곡절과 너무나 힘들게 점철되어 온 일선 축산사업의 행로였다고 봐도 과언은 아니다.

몇마리의 송아지부터 시작되어 어미소가 되어 새끼가 태어나고부터의 고민(?)거리는 어떻게 젖을 짜야하는 문제였으며 짜낸 젖은 어떻게 운반하여 어떻게 가공이 되느냐는 것이었다. 그 당시만 해도 한 군데의 유업체에서 수거하여 우유를 만들었으니 그 방법이야말로 지금처럼 수백가지 좋은 품질의 우유를 각 유업체의 품질경쟁으로 생산되는 방법이 아니었다. 오직 정부에서 정책적으로 밀어부치기방식으로 생산되는 그야말로 국민의 체력증대라는 전근대적인 정부의 정책중 한 방법이었던 것이다.

우리가 알고 있는 착유의 변천사는 다음과 같다.



① 1960년대 : 손으로 착유하기, 우유통에 우유를 넣어서 흐르는 시냇물 혹은 우물물 같은 곳에 냉각하기. 들이나 산에서 풀을 베어다 사료주기.

이 방법은 최초의 우리나라 착유방식이며 우리의 산 역사이기도 하다.

② 1970년대 후반 : 손으로 젖을 짜는 시대에서 소의 마리수가 늘면서 1~2두용 바켓츠로 착유하기. 흐르는 물이나 우물물에 우유보관하기. 사료는 풀과 배합 사료를 손으로 주기

③ 1980년대 : 5두용 바켓츠로 짜기. 개방식 냉각기로 냉각하기. 사료는 수입 조사료, 혹은 건초로 주기.

④ 1980년대 후반 : 파이프라인으로 착유하기, 개방식 냉각기, 밀폐형 냉각기로 냉각하기.

⑤ 1990년대 : 헤링본, 텐덤으로 짜기. 컴퓨터사료급여기로 사료주기.

⑥ 1990년대 후반 : 오토헤링본, 오토텐덤, 컴퓨터사료급여기, 밀폐형 냉각기 등등의 완전 첨단화된 자동화기계로 착유 및 사료를 공급하는 방식 사용.

여기에서 보면 우리나라는 착유설비의 변천과정이 초창기에는 서서히 변화되던 것이 1980년대부터 급속도로 눈에 띄게 자동화로 바뀌기 시작했다.

손착유에서 바켓츠로 - 파이프라인으로 바뀌는 20년주기에서 파이프라인에서 텐덤이나 헤링

본, 사이드바이사이드 같은 선진형 자동화 기계로 바뀌는 주기는 불과 5년~8년 사이에 급속도로 발달했다.

이것은 우리나라의 개인성격상의 급한면도 많이 작용했지만, 그만큼 낙농에서 불편하고 힘든 것이 노동의 시간과 노동의 현실이 너무도 힘이 들었기 때문이다. 그와 반면에 기계의 도입은 빠르게 되었지만 상대적으로 기계의 사용방법과 관리적인 면에서는 기계의 도입시기에 훨씬 미치지 못했다.

우리가 처음으로 젖소를 키우면서 착유를 시작할 때 흔히 우리가 말하는 선진낙농이라고 하는 유럽은 이미 자동화된 기계와 소를 키우는 우사의 환경을 1970년대에 바꾸기 시작했다.

이 뜻은 벌써 30년전부터 이미 유럽이 소를 키우는 환경과 자동화에 뜻을 둔 것은 고품질우유를 생산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시절에 우리는 왼손으로 오른손으로 바쁘게 젖소 유방의 아래위를 움직여가며 젖소의 두 다리 사에에서 땀띠나 흘리고 있었던 것이다. 이 이유는 우리나라의 낙농이 늦게 시작한 이유도 있거니와 시작할 당시부터 낙농의 전문성과 정책적인 기술의 보조부재가 원인이었던 것이다.

나는 개인적으로 수년전에 이런 사람도 봤다. 축산낙농 1세대

인 아버지는 초창기때 송아지 몇 마리로 시작해 수년전까지 80두 착유에 기백마리의 소를 키우며 성공했는데, 자식대에게 낙농사업을 물려주면서 그래도 자식은 당신자신처럼 힘들게 소를 키우면 안된다고 온갖 자동화기계를 거금을 들여 설치해 주고 낙농일선에서 물러났다.

그러나 그 자식은 서울에서 일류대학을 다니며 축산을 전공까지했지만 결국은 그 자동화 기계로 착유하는 것도 힘이 든다고 1년만에 젖소를 모두 팔아치우고 비육우로 전환했다.

이것이 현재 우리나라가 현실적으로 가지고 있는 3D(힘들고, 더럽고, 위험하고) 현상의 좋은 본보기인 것이다.

낙농을 천직으로 알며 살아온 분들에게는 죄송한 얘기일줄 모르나 현재의 현실적인 문제는 우리나라의 낙농산업이 대부분의 목장이 체계성과 생산성이 없다는 것이다. 그 이유를 대강 정리해 보면 이렇다.

### 1. 낙농의 생산성을 체계화 하자

여기에서 체계성이란 구체적이고 계획적인 투자와 지출을 의미하며 생산성이란 생산된 우유와 기타 부수적인 수입에 의한 순수 이득을 말하는 것이다.

젖소를 기르며 무조건 소에서 나오는 우유의 양만을 가지고 착유를 한다든가 아니면 나는 우리

목장에 몇마리의 소가 있으며 몇두를 착유한다하는 방식의 목장사업은 벌써 10년 이전의 방식에 불과하다.

대기업의 사업이나 일개목장의 사업도 개인으로 따지면 사업은 사업이다. 다만 다른 것은 어떻게 해서 이윤을 내고 희망적인 앞날의 포부와 가능성을 가지느냐가 각기 다른 취지의 사업개념인 것이다.

우리는 무조건 큰것만 좋아한다. 목장하는 분들도 때로는 무조건 큰 착유실을 갖기 원한다. 우유를 짜야 할 소와 주변여건도 갖추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사업도 무조건 총매출액이 얼마인 것만 자랑스럽게 얘기하곤 한다. 그러나 착유만 많이하면 무엇하나? 그만큼 소가 많으면 나가는 지출비도 많은데...

그래서 큰 기업들도 ○○ 운동이니 ×× 사내캠페인이니 하면서 지출을 줄이고 균살을 뺀다. 목장도 이러한 균살과 지출비를

줄이려면 고진감래를 해야 한다. 자기가 키우는 젖소의 혈통과 개별 소의 능력을 확실히 파악해 "개별능력 키우기"를 해야 한다.

이 방법은 컴퓨터건 자동화건, 아니면 개인노트에 손으로 기록을 할망정 한마리 한마리의 능력에 대응하는 일대일식의 젖소능력을 키워 한마리당 최고량의 우유를 생산해야 한다.

지금도 어느 지역의 목장은 여지껏 손으로 기록하면서 진짜로 열심히 개별로 소의 능력을 관리하는 목장이 있다. 이런 사람은 진짜로 존경받을만한 사람이다.

반면에 어떤 목장은 그냥 되는 데로 우유가 많이 나오는 소나 적게 나오는 소나 그냥 그렇게 사료를 주거나 관리한다. 이런 목장주는 저능력우에게는 존경받을 지 모르나 고능력우에게는 미움받는다. 고능력우는 고능력우 답게, 저능력우는 저능력우 답게, 대우를 해줘야 한다. 아니

면 고능력우만 골라 키우던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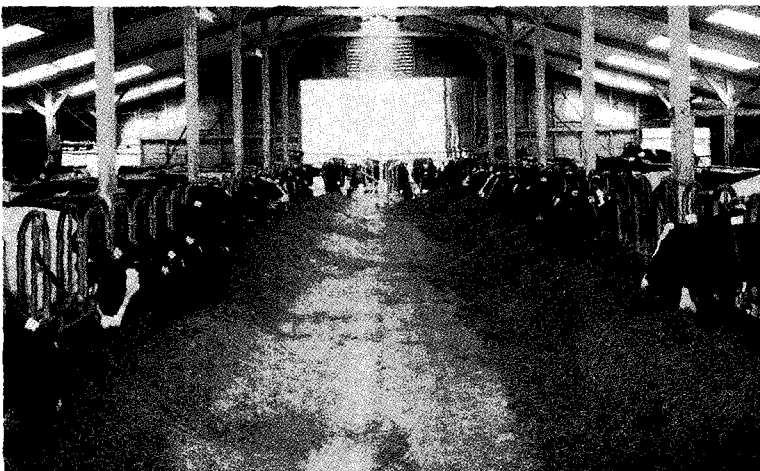
젖도 적게 나는 소는 가지고 있어봐야 사료값만 축난다. 이 관리는 목장주 자신이 해야 한다. 할 자신이 없으면 전문가에게 맡겨 조언을 받아도 된다. 검정이나 종축개량은 그냥하는 것이 아니다.

일년에 송아지를 낳는 것도 관리만 잘하면 분만 간격을 충분히 줄일 수 있다. 이것도 생산성이다. 우유를 생산하여 세균수를 줄이고 깨끗한 우유를 소비자에게 마시게 하는 것도 생산성이다. 그러려면 기계의 설비, 젖소의 위생관리를 철저히 해야 한다. 이렇게 해야만 생산성이 는다.

그 다음에는 지출을 줄여야 한다. 이 지출은 세밀한 점검이 필요하다. 허실사료의 차단, 개체별로 정확한 양의 사료주기, 소의 개별관리를 세밀히 하면서 약품 줄이기, 항시 환경을 깨끗이 해주면서 질병 줄이기 등 사실 할 것이 너무도 많다.

그러나 몰라서 못하기보다 귀찮고 힘들어서 못한다. 병걸린 소가 무슨 죄가 있다. 병에 안걸리게 사전에 막아줘야지, 목장주가 관심을 주지 않아 소가 병에 걸리게 하는 것도 죄받을 일이다.

이렇게 수입의 생산성을 늘리며 나가는 지출을 줄이면 당연히 주머니에 들어오는 수입이 많아지게 된다.





## 2. 젖소의 느낌을 가지고 현실적인 관리를 하자

우리나라 목장의 대부분이 젖소 사양관리에서 제일 힘들고 많은 시간을 빼앗기는 것이 대부분은 착유실에서다.

착유시간대를 줄이려면 첫째로 소가 청결해야 한다. 소가 청결하려면 소가 쉬는 장소를 깨끗이 해주어야 한다. 그러려면 우사에 톱밥이든 분뇨스크래퍼든 황토흙이든 어떤방법이든 물기와외의 접촉을 차단해 항시 건조한 자리를 마련해 줘야 한다. 특히 더운 여름철에는 환기와 건조를 동시에 제공해주어야만 소에게 질병을 예방할 수 있으며 또 더불어 착유시간대를 줄일 수 있다.

그런데 우리나라 목장주의 대부분은 밖에서 생활하는 소의 환경자체를 개선해 줄 생각은 하지 않고 오히려 그 때문에 생기는 질병, 유방염에 대한 약값만 턱없이 지불하면서 유방염이 걸리면 먼저 기계를 의심하기 시작한다.

유방염은 감염성 병균이다. 유방염이 걸린 소는 절대적으로 착유군에서 분리착유를 해야 하는데 일반적인 전문지식이 없이 착유하는 목장은 대부분 건강한 소나 유방염이 걸린 소나 같이 착유한다. 그러니 유방염이 계속 번질 수 밖에...

우사의 환경이 더러우면 유두에 침투하는 세균이 가장 쉬운 시기가 착유를 막 끝낸 시기이다. 착유를 끝내고 착유실에서

퇴장하는 소는 약 30분간 세워두는 요령이 필요하다. 이 시간은 착유시에 벌어졌던 유공이 닫히는 시간인데 우리는 대부분 착유를 끝낸 소나 끝내지 않은 소나 그냥 아무곳에서나 앉도록 만들어 놓는다.

특히 여름에는 소가 시원하고 찬곳에 앉기를 좋아한다. 그래서 그늘진 분뇨위에 자주 앉는다. 그후의 결과는 뻘한데 우리들은 그러고도 유방염이 걸렸다고 온갖 걱정을 한다. 사람이나 젖소나 병은 미리미리 예방을 해야만 한다. 그래야 매사에 걱정없이 살수 있다.

이렇게 우사의 환경이 깨끗하지 못하면 병균의 침투나 특히 착유실에서 소요되는 유방세척의 시간이 더욱더 길어진다.

착유시간에 착유실에서 착유전에 소의 유방에 묻은 온갖 오물을 닦아주는 세척시간이 착유시간의 모두를 소요한다해도 과언은 아닌데 우리는 이렇게 쓸데없이 시간을 모두 소비한다. 차라리 우사의 환경을 깨끗이 해주면 모든면에서, 질병예방이나 약품비 절감이나, 착유시간대의 소모를 줄일 수 있을텐데 그렇게 하지않는다.

착유시에 유방을 물로 닦아주면 더 깨끗한 우유가 나올 줄 알겠지만 우유는 유방속에서 나오는 것이지 유방이 깨끗하다고 더 깨끗한 우유가 나오지는 않는다. 걸 다들 알고 있으면서 착유

시간에는 젖소의 유방을 닦는데 온 열정을 다 바친다.

실은 유방의 오물을 물로 닦아준후 뒷처리를 잘하지 못하면 오히려 착유시 라이너의 진공압에 의하여 유방세척후에 유방외부에 묻은 온갖 오물이 유두끝을 타고 라이너로 흡입되어 우유라인을 통해 냉각기로 빨려간다. 그후에 결과는 뻘하듯이 등의 판정을 받는다.

우유는 유두를 통해 나오지 유방의 주위에서 나오는 것이 아님을 잘 알아야 한다. 오히려 우사를 깨끗이 해주면 착유시간에 유방을 그렇게 정성스럽게 닦아주지 않아도 될텐데 말이다.

소는 습관의 동물이다. 자동탈착기가 있으면 기계가 자동으로 분석을 해서 자동으로 착유후에 탈착을 해주지만 사람이 수동으로 착유를 하면 착유자의 경험에 의한 느낌과 소의 유방을 만져보고 착유가 다 끝난 것인지 더 짜야하는지를 판단하게 된다.

그러나 더욱 중요한 것은 어느 소든지 착유의 방법을 일률적으로 매번 정확히 한다면 수동이라 할지라도, 유방에 조금의 우유가 남아있다 하더라도 습관의 일류적 방법은 건강한 소를 만들 수 있다. 젖소는 유방에 단 한모금의 우유를 남기지 않는다하더라도 착유후 돌아서서 걸어나가는 동안에도 우유는 재차 생성이 되는 것이 젖소의 생리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착유나 사료급여도 개인의 느낌과 감정의 착유보다는 매번 똑같은 방식의 착유와 사료급여가 중요하다. 자동화 기계의 원리도 프로그램에 입력된대로 매번 같은 방식으로 작동하는 것이다.

사람도 이렇게 자동화 기계처럼 매번의 똑같은 반복적인 행동이 소에게는 가장 무리없는 착유와 관리를 할 수 있는 시작이 된다.



로 줄 것인가 하는 모든 것을 비교, 숙지, 관찰 혹은 이웃목장과 비교해서 선택해야 할 것이다.

변화가 생기는 까닭은 개인의 목장에 개인의 주관성이 도입되는 것보다 단체적인 지역 낙농의 흐름을 많이 따라가고 있다는 증거이기도 하다.

전문가의 조언을 받아서라도 자기목장 소의 체질분석을 한 후에 그에 합당하는 관리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그래서 유럽은 사료회사, 유업체 관계자, 정부의 관계자들이 서로 규합하여 농가에게 조언과 충고를 해준다.

### 3. 주관성이 있는 목장사업을 하자

그 다음에 생산성의 저해요인은 우리나라 목장주의 다수가 귀가 얇기 때문이다. 기본적인 주관의식 없이 옆집에서 이것을 하면 자기도 따라 한다. 뒷집에서 어떻게 해서 소가 우유가 늘었다고 하면 대뜸 따져볼 것도 없이 또 그렇게 따라간다.

기계를 구입할 때도 자기목장이 파이프라인으로 해야 할 것인지, 텐덤으로 해야 할 것인지의 구체적인 향후 계획도 없이 무조건 이웃목장의 기계만 보고 자기도 그렇게 따라한다.

기계를 선택할 때는 자신의 목장 입지조건과 앞으로 몇 년 후에는 몇마리를 팔 것인가, 사료는 어떻게 주고 어떤 방식으

그래서 계획성과 주관성이 있는 사업을 해야 한다. 우리나라 전국의 지도를 놓고 판매계획도를 보면 각 지방별로 착유기의 종류와 사료급여의 종류가 2~3년 주기로 전국을 돈다.

예를 들어 1990년도는 전라도에 TMR배합기가 유행이더니 1993년에는 전라북도, 1995년도에는 어느 지역이, 또 몇년도에는 어느 지역이 TMR을 하면서 몇년이 지나면 처음에 TMR을 하던 지역이 TMR을 전부 철거하고 사료급여기로 모두 교체한다는식의 주기적인 유행패션 같은 낙농을 하고 있다.

물론 TMR이던 컴퓨터 사료급여기던 서로 장단점이 있기가 하지만 이렇게 주기적인 흐름의

### 4. 기계구입시 신중히 선택 하자

기계를 구입시에는 그 기계의 장, 단점, 기능, 서비스 능력, 본사의 스페어 부품 조달능력(수입기계시) 등등의 모든 조건을 따져보고 기계를 구입해야 한다. 아래, 뒷집에서 기계를 구입했다고 무조건 따라 해서도 안된다. 기계의 선택과 기계의 사용은 여차피 본인 자신이 해야만 된다.

어떤집은 이미 기계를 구입해서 사용하고 있지만 사후 서비스가 안되는 업체의 기계를 사서 계속 골탕을 먹고 있으면서도 이웃목장이 기계를 구입한다고 하면 자기와 같은 기계를 구입하도록 권유한다, 그래야 업

체에게서 여러집이 함께 몰려있으니 혹시 서비스를 잘 받을 수 있을까 하는 기대심리로 이웃에게도 피해를 미치게 한다.

낙농의 기계는 품질과 기능, 성능도 중요하지만 사후처리 서비스도 무척 중요하다. 팔때는 타 기계에 비해 월등히 싸다고 했는데 파는 사람도 이윤을 안 남기고 팔았다면 무슨 돈으로 서비스를 해주겠는가.

우리나라의 낙농시장은 좁다. 기계를 구입하려면 주위의 기준에 사용하고 있는 사람에게서 여러각도로 알아보고 비교한 후에 구입하도록 하라. 그래야 후회를 하지 않는다. 하루이틀 쓰고 버릴 기계가 아니니까...

## 5. 구입한 기계를 자신의 기계로 만들자

이제 기계를 구입했으면 그기계를 나의 기계처럼 관리해야한다.

이 얘기는 기계에 대하여 목장주도 어느 정도는 기계의 성능과 기능, 원리를 파악하고 사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비싼 금액을 주고 기계를 구입했으면 기계를 비싸게 사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남들이 자동화한다고해서 비싼 돈 주고 기계를 샀으면 그만큼 열심히, 효과있게 사용해야 하는데 다수의 사람이 그렇지 못하게 단순기능만 가지고 사용한다.

목장주도 공부를 해야한다. 남들보다 더 많은 수입을 올리려면 그만큼 더 많은 노력을 해야한다.

다. 그리하여 자신의 기계에 대한 성능과 기능을 알아야만 그 기계의 능력을 100% 사용할 수 있다.

어떤 목장주는 착유실에 기계 점검표나 기능 요약표를 아예 벽에 걸어놓고 매일매일 기계점검을 스스로 한다. 그래서 이상이 있을 것 같으면 기계가 고장이 나기전에 미리 서비스기사를 불러 조치를 한다. 이런 현상은 매우 바람직한 일이다.

## 6. 항시 애프터 서비스의 중요성을 가지고 있다

예전과 달라서 몇몇 기계판매업체는 열심히 서비스를 한다. 왜냐하면 그만큼 구매자도 이제는 알면서 구매를 하니 판매경쟁에서 이기려면 성실과 정직, 신용으로 사업을 해야 한다.

예전처럼 시골 구석구석을 누비고 다니면서 보따리장사식으로 농가를 기만하는 그런식의 판매를 농가도 이제는 알고 있지만 이미 자유경쟁시대에서 그런류의 소규모 보따리 장사식의 판매는 많이 부도를 내고 줄어 들었다.

각 업체마다 다 각기 다른 기능과 원리가 있으며 각 나라마다 사용되는 화폐의 가치에 따라 수입기계는 가격의 차이가 더러 있을 수 있다. 기계를 구매하는 소비자의 입장에서는 싸고 좋고 서비스가 잘되는 기계를 구입하고자하는 것은 기정사실이지만 영업사원과의 일대일 거래에서 상

대기계 보다 너무 싼 기계는 한 번쯤은 구매를 고려를 해봐야 할 일이다.

특히 시골에서 낙농을 하는 분들은 그 지역의 가까운 곳에 그 사고자 하는 기계의 대리점이나 영업소가 있어야 한다. 그래야만 긴급발생시 제일 가까운 곳에서 기술자가 파견되어 수리를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서울서 직접 수입업자가(혹은 본사) 직거래가격으로 싸게준다고 너무 쉽게 구입을 하면 나중에 기계고장시 수리기술자가 서울서 내려 와야 하는데 그것은 그리 쉬운 일이 아니며 그 수리할 동안 농가의 피해는 막심하다. 이러한 이유로 기계의 수리관계자는 가깝게 있을수록 좋다.

이러한 이유는 각 농가들이 모두 알고 있으면서 막상 기계구매시는 또 그렇지 않고 싼것만 찾는 경향이 있다. 이런 이유로 지금도 우리회사로 타 기계를 사용하고 있는 낙농가들의 서비스의 퇴가 접수되곤 하는데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다.

## 결 론

어찌했던 목장의 사업에서는 우유가 최상의 품질로 많이 생산되어야 한다.

자동화된 기계는 글자 그대로 사람의 손이 가지 않아도 자동으로 척척 모든 것을 해결해 주는 기계이다.

그러나 자동화된 기계도 나타

나는 결과를 보고 항상 사람이 옳고 그름을 판단해 무엇인가 잘못되었을 때는 즉시 프로그램을 수정해야 한다. 노동력만 줄이고 자 자동화에 투자한다면 그것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일이다.

**현재 우리나라의 목장자동화의 투자 목적은**

1. 쾌적한 환경속에서의 사람이나 소에게 스트레스를 주지않 으면서 착유나 사료급여 노동을 하여 우유의 생산을 증대하고,
2. 신선하고 청결한 우유의 생산으로 소득을 배가하며
3. 개체별로 소의 모든 상태를 분석하여 낙농전업농으로 전환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하겠다.

이렇게 자동화의 투자개념을 확실히 알고서 낙농가는 주관성이 있는 낙농사업을 해야겠다. 이제는 목장의 사업성의 가치 판단에서 낙농가가 생존경쟁에서 이기려면 참으로 힘든 고비의 선택과 절실한 노력이 필요한 때이다.

사양관리에서의 문제점이 돌출되면 전문가와도 상의를 하여 소에 대한 관리를 최대한 끌어 올려야 하며, 이미 소의 품질을 최대한 끌어올린 다음의 기계에 대한 적응관리는 기계의 판매를 한 회사나 그에 해당 되는 대리점, 사용하는 낙농가

가 삼위일체식 사후관리 서비스체제로 최상의 기계관리 사용을 해야 한다.

이것은 소의 스트레스, 질병을 줄이는데 절대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 그러므로써 크던 작던간에 목장사업에서 자신이 장래의 목표를 두고 있던 그 꿈에 도전하여 한걸음, 한걸음씩 정진을 하여 종래에는 누구나 다 가지고 싶었던 그 원대한 무엇에 대한 목표를 성취할 수 있을 것이다.

끝까지 이 글을 읽어주신 낙농육우 독자들께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

(필자연락처 : 02-430-5081)

**"범국민 사랑의 우유 나누기 운동" 캠페인**

국산우유의 우수성 홍보를 통한 소비확대로 국내 낙농산업 기반을 확충코자 시작된 낙농자조금사업이 총 25억원의 낙농자조금을 조성하여 7월 1일부터 본격적인 우유소비 홍보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홍보의 일환으로 「범국민 사랑의 우유 나누기 운동」을 아래와 같이 실시하오니 지속적인 낙농가 여러분의 뜨거운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 기 간 : 99년 7월 1일~12월 31일
- 주 최 : 한국낙농육우협회 낙농자조금추진위원회, SBS, 동아일보
- 주 관 :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범국민 사랑의 우유나누기 운동본부
- ARS 전화모금 : 전국 어디서나 ☎ 700-1212로 전화하시면 1통화당 1,000원씩 자동으로 성금이 접수됩니다.

○ 은행계좌모금  
☎ 02-598-1213, 연중 성금을 접수

- 농 협 : 083-01-264956, 축 협 : 036-10238-916
- 국민은행 : 067-01-0512-031, 예 금 주 : 전국공동모금회

☎ 문의전화 : 범국민 사랑의 우유나누기 운동본부 (02)598-1213

